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2014.11.17 | 이수연_새사연 연구원 | soo@saesayon.org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화폐는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 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지역화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수평적 호혜관계와 상호 부조 촉진이다. 레츠, 아워즈, 타임뱅크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지역경제의 자립과 활성화 촉진이다. 스위스 비어, 독일 김카우어, 영국 브리스톨파운드 등 주로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화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물론 이 두가지 목적을 완전히 구별하기는 어렵다. 수평적 호혜관계가 확대되면 그것이 바로 지역경제의 자립이나 활성화로 이어질 수도 있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 상호부조의 촉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¹⁾

특히 최근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내에서도 강원도가 이러한 맥락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²⁾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가 침체 일로를 걷게 되면서 더욱 경제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역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화폐는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까?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역에서는 실제로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 이루어졌을까? 안타깝게도 세계 곳곳에서 지역화폐 실험이 진행되고 있지만, 지역화폐와 경제 활성화 간의 인과관계를 보여줄만한

1)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2) 연합뉴스, 2014.4.9, 강원도 지역화폐 유통 2016년 시범운영 추진



실증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들로 인해 여기서는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해 논하되, 실증적 사례 분석이 아니라 이론적 추론과 설명 중심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발전은 무엇인가?

우선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경제 발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역경제의 발전을 측정하는 지표로는 지역내총생산(GRDP, 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소득(GRNI, Gross Regional National Income), 취업자수, 인구수, 지방채 발행량과 발행금리 등이 주로 사용된다. 이중에서도 GRDP나 GRNI와 고용률이 소득수준을 가늠하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지역경제 발전의 방식은 크게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으로 구분된다.³⁾ 외생적 발전의 경우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 외부로부터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이 들어오면, 고용과 인구가 늘어나며, 그것이 다시 지역내 관련 산업의 발전으로도 이어지고, 지방재정의 확대를 가져와 연속적으로 지역이 발전하게 된다는 가정이다. 우리나라의 제철, 석유화학, 기계공업 등 핵심 기간산업이 잘 발달되어 있는 포항, 구미, 울산, 창원 등이 외생적 발전의 대표적 예이다.

하지만 외생적 발전은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자생적 발전 잠재력을 훼손하고 환경파괴나 소득의 역외유출과 같은 부작용을 가져왔다. OECD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규모 투자로 대기업을 유치하여 성장하였더라도 시장 조건이 변하면 대기업을 이전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지역이 적지 않고, 또 고용이 창출된 경우도 고용 창출 비용이 과다하며, 기업을 붙잡기 위해서는 더 한층의 외부지원이나 공공 인프라 공급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재정한계로 이를 지속하기 어렵고, 더 문제는 지역의 자생적인 기업가 창출을 방해하거나 대체해버렸다는 것이다.⁴⁾

특히 소득의 역외유출 문제는 국내 주요 지역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소득의 역외유출은 일반적으로 GRDP와 GRNI의 차이로 측정한다. 지역내 생산과 지역내 분배의 괴리를 측정하는 것이다. 외생적 발전이 이루어진 대표적 도시인 울산과 충남의 경우 각각 2010년 기준 GRDP는 약 52조 4200억 원과 64조 1200억 원이다. 하지만 같은해 GRNI는 각각 약 40조 4100억 원과 40조 원이다. 이 둘의 차이를 계산해보면 두 지역에서 발생한 역외유출은 각각 약 12조 원과 24조 원에 이른다. 두 지역 외에도

3)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제47집. 이후 나오는 외생적 발전과 내생적 발전에 대한 설명의 많은 부분을 이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4) OECD, 1992, Businesses and Job in the Rural World. 박경, 2008, 대안적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내생적 발전론, 사회과학연구 제47집에서 재인용.



같은해에 인천이 약 1조 4000억 원, 강원도가 약 3조 6000억 원, 충북이 약 6조 원, 전북이 약 4조 8000억 원, 전남이 약 18조 4000억 원, 경북이 약 13조 4000억 원, 경남이 약 1조 5000억 원, 제주도가 약 8000억 원의 역외유출을 기록했다.

표 1. 권역별 소득의 역외유출입 규모(2010, 단위 : 십억원)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권	강원제주
84,3546.4	-29,157.1	-17,281.0	-7,391.9	-22,334.0	-4,535.0

출처 : 박경, 2011, 우리나라 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

내생적 발전, 지역의 자원 활용과 순환

외생적 발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내생적 발전은 지역경제 발전의 원동력을 내부에서 찾는다. 또한 단순히 자원 출처의 내부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와 지역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강조하며, 경제성장이라는 피상적 양적 목표보다 교육,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의 증진까지 포함하는 실질적 주민의 복리 증진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지향해야 할 경제발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내생적 발전에 의하면 외부 기업 유치보다는 지역내 산업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산업 복합체를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지역내 기업끼리 상호거래를 하면 일과 돈이 돌아서, 고용도 늘고 세수입도 늘어나며, 늘어난 세수입으로 지역내 재투자를 하면 지역경제 자립과 활성화의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다. 즉, 내생적 발전은 지역내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내 경제순환을 만들고 지역내 재투자를 증가시키는 것이다.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화폐는 내생적 발전을 촉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⁵⁾, 여러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지역화폐가 지역의 경제 주체를 활성화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 둘째, 지역화폐가 지역 내 교환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셋째, 지역화폐가 개별 시민들의 삶의 방식을 더 지역적이고, 더 지속가능하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 즉, 지역 내 경제주체, 지역 내 교환, 지역 주민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세 가지 측면

5) Fare, 2013, Sustainable territorial development and monetary subsidiarity, 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in The Hague., Fare, 2012, Community and Complementary Currencies as Tools for Sustainable Development, Veblen Institute for Economic Reforms., Toth, 2011, The Function of Local Currencies in Local Economic Development, Public Finance Quarterly.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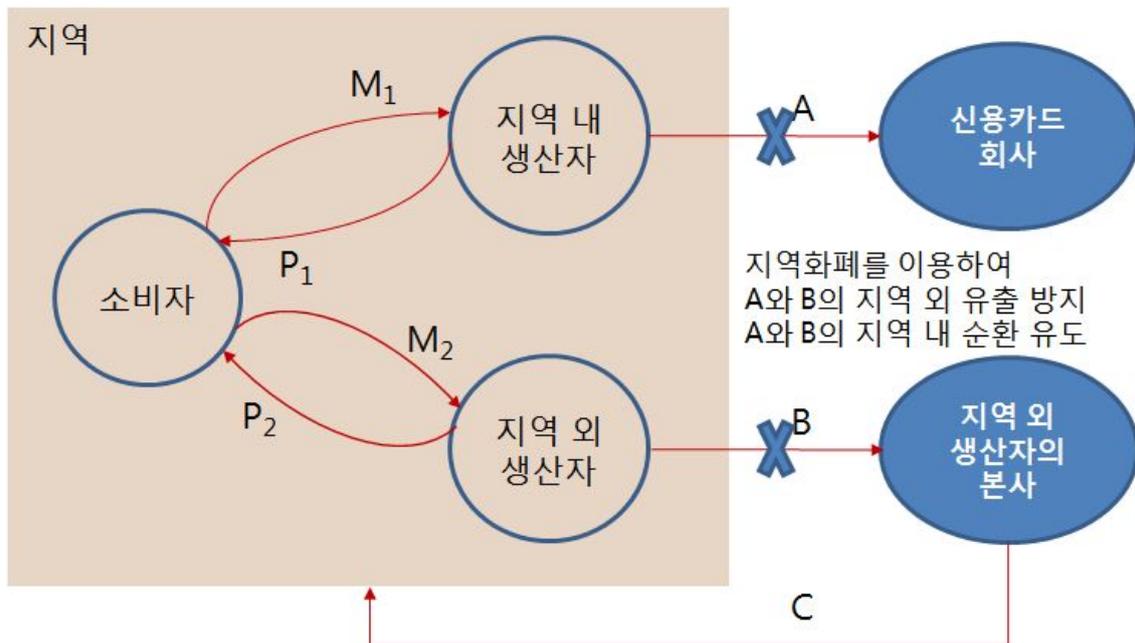


면에서 지역화폐가 내생적 지역발전으로 이어진다고 본다.

지역화폐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배경에는 지역화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자리 잡고 있다. 지역화폐의 큰 특징은 두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에 사회적 관계를 붙여넣는다는 점이다.⁶⁾ 그리고 특정 지역 내에서만 통용된다는 특징도 갖고 있다.

지역화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신뢰 형성

그림 1. 지역화폐의 지역 외 소득유출 방지 과정



(M₁, M₂ =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돈, P₁, P₂ =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일단 지역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축적하고 있는 것보다 소비하는 것이 이득이다.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많고, 지역화폐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질이 나쁘지 않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내 소비와 유통, 생산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는 지역의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으로 이어진다. 돈이 지역 외부로 나가지 않으면서, 지역 안에서 빠르게 회전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외지에 본사를 둔 기업체나 신용카드 회사를 통해 지역 밖으로 나가던 돈들이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6) 이수연, 2014,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하지만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다면 지역화폐는 소비되지 못하고 장롱 속 어딘가에 쌓여있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역화폐와 함께 지역 내 기업의 참여와 외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역 기업 창출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⁷⁾

또한 지역화폐를 통해 지역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연대의식에 기반한 신뢰가 형성된다. 지역공동체를 위한 소비를 지향한다, 지역 생산자들이 생산한 친환경적이고 믿을 수 있는 생산물을 소비한다, 외지 유통업체가 아니라 지역의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는 등의 지역화폐만이 가지는 의미가 잘 공유될수록 이러한 효과는 높아진다. 지역화폐를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바우처나 기본소득, 영세 중소기업과 상인들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 등과 연동하여 운영한다면 지역화폐 사용을 통해 해당 지역 주체들을 도울 수 있다는 점도 부각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증대할 수 있고, 지역 내 소외된 계층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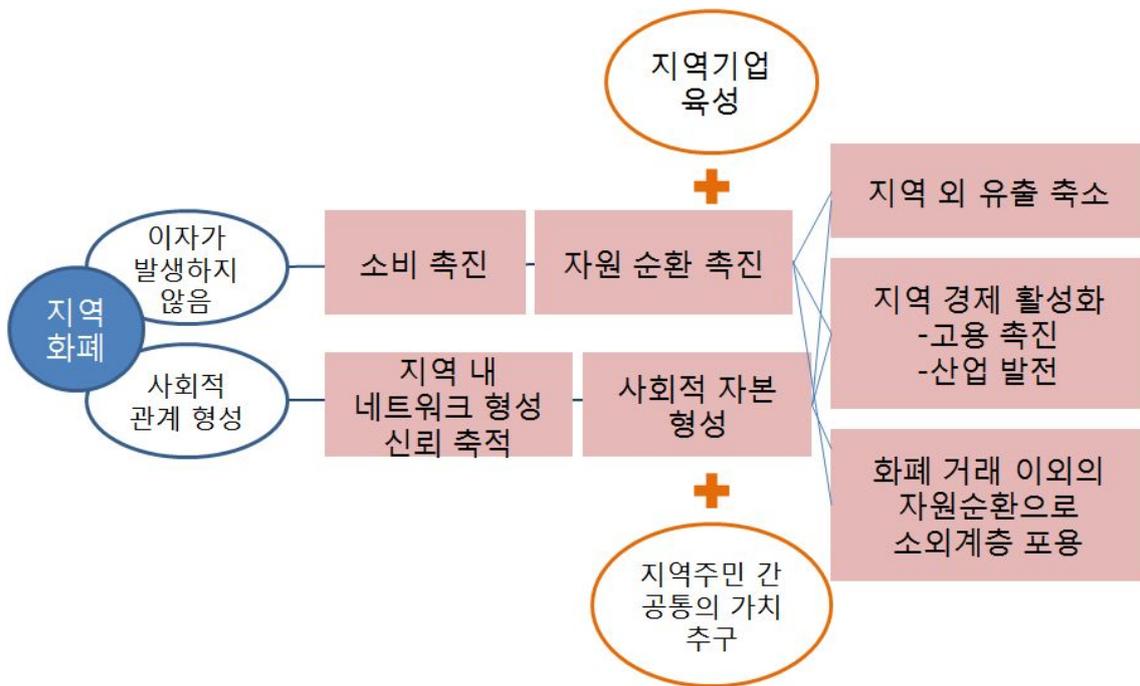


그림 2.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지역화폐가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배경에 대해서 정리해볼 수는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그럴 수 있도록 현실에서 실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7) 한성일, 2013, 지역화폐운동과 지역경제, 지역사회연구 제 21권 제 4호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11월 17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해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의로,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주거	8/25	마을계획 : 주민들의 일상적 사고와 활동의 순환과정	강세진
경제	9/2	MB정부보다 더 강화된 풀뿌리 관광육성정책 파괴	정란수
보건복지	9/5	보건복지부의 답변은 틀렸다	이은경
보건복지	9/11	9시 등교, 과학적 근거로 접근해보자	이은경
고용	9/12	2014년 8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의료	9/15	민영화를 민영화로 돌려막는 박근혜 정부	이은경
주거	9/16	주택구매 수요계층 전환기, 값이 떨어져야 시장이 살아난다	강세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주거	9/22	80년대 이후 주택가격추세 분석	강세진
사회적경제	9/25	지역화폐의 이해와 유형 분석	이수연
보건복지	9/26	표류하는 공무원 연금	이은경
노동	9/30	증가추세의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 질적 측면 제고해야	김수현
사회적경제	10/10	유럽의 여섯 가지 지역화폐 실험 소개	이수연
복지	10/14	건강보험 부과체계 논쟁, 소득·자산 의미 없다	이은경
노동	10/16	2014년 9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주거	10/20	주택의 사회적·경제적 속성, 그리고 사회주택	강세진
복지	10/21	공무원 연금 개악, 대대적 복지 축소로 이어질 것	이은경
정치일반	10/30	제19대 국회 입법활동현황 : 국회의원들의 '실적주의' 그림자	이상동
주거	11/3	매점된 주택의 비극 <끝없는 전세가 상승>	강세진
주거	11/5	사회주택과 사회적 경제주체 활성화	강세진
노동	11/13	월간 노동시장 모니터 : 2014년 10월 노동시장 분석	김수현
사회적경제	11/17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이수연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해주세요.